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oddlers' Behavior Problems and
Caregivers' Difficulties

윤 주 화 **

Youn, Joo Hwa

이 중 희 ***

Lee, Jong H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behavior problems of toddlers in the day care setting and difficulties of the caregivers due to such behaviors. The subjects were 24 toddlers enrolled in two day care centers and 56 caregivers at day care centers in Seoul. Toddlers were observed and teachers filled out questionnaires.

Analysis of the data by x^2 and correlations revealed the kind of behavior problems frequently shown by toddlers, sex differences, differences between centers, and the caregivers'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frequency and difficulties of such behavior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집단 보육 상황에서 걸음마기 아동들이 표출하는 문제행동의 종류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통 한 살 이후부터 세 살까지의 기간으로 일컬어지는 '걸음마기'는 인간의 전 생애 중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무엇보다도 혼자 힘으로 걷게 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 높이가 달라지

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점차로 상승되어 이제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능동적인 도전을 하고자 한다.

걸음마기는 이러한 신체적 능력의 변화와 함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정서가 극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여서 '제 1 반항기'라는 용어가 부수적으로 붙여지기도 한다. 걸음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간에 나타나는 빈번한 부

* 본 논문은 1998년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정적인 정서는 '상반되는 욕구의 공존'이라는 걸음마기의 정서적 특이성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한다(Koralek, 1993; Lieberman, 1995). 즉 이제까지 의존의 대상이었고 욕구 충족의 통로였던 어머니 주양육자를 심리적인 안전 기반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동적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기 아동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충동적이며, 고집을 세우는 경향이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걸음마기에는 욕구가 급격하게 다양화되는데 반하여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동은 상당한 양의 실패와 좌절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잘 다룰 수 없는 걸음마기 아동은 쉽게 분노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주위로부터 '떼쟁이', '떼보'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한다. 사실 걸음마기 아동에게는 '미운 세살', 'Terrible Two' 등의 별명이 공공연하게 따라다닌다.

걸음마기 아동에게 붙여지는 이러한 별명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난감함을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걸음마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의 어려움은 이제까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지 못했으며,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최근까지 미미하였다(이재연, 김경희, 1989; Caruso & Corsini, 1994). 송명자(1995)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아동연구는 대부분 만 3세 이후의 유아기나 아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Hatch(1995)도 최근까지 걸음마기 아동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보육기관에 다니는 걸음마기 아동의 수가

늘고 있는(박경자, 1991) 현실은 이들의 발달 특성은 물론 보육 상황에서 이들이 표출하는 행동 양식을 예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어린 아동이 모든 변화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 기반인 어머니와 헤어져 보육기관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다루기 어려운 경험이다. Lieberman(1995)에 의하면 보육기관에서 생활할 경우 겪게 되는 걸음마기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미운 것'을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많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들이 보육기관에서 표출하는 행동전반에 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기질연구, 탁아연구, 문제행동연구 등의 영역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기질연구는 Thomas와 Chess가 1977년에 실시한 뉴욕 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에서 영아의 행동특성과 기질간의 관계를 밝힌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기질연구가 제시한 가장 의미 있는 시사점은 아마도 유아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단지 부모의 무능력이나 과오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즉 유아들 가운데는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태어난 유아가 있으므로 유아의 기질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판단하여 유아와 양육자간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특히 강조되었다(천희영, 1997; Lieberman, 1995).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질연구는 기질을 주로 유아의 개인적 특성으로 또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 내에서 연구하여 왔으므로 집단 양육 상황에서 걸음마기 아동이 표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밝혀주는 바가 없다.

한편, 탁아연구가 걸음마기에 기올인 관심은 주로 탁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걸음마기를 연구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초기 탁아 연구에서는 탁아가 모자간의 애착, 아동의 지적 성장,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연구들은 탁아의 효과를 양적으로 밝히고자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단순한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여 단편적인 해석들을 제시했을 뿐이다(이차숙, 1991). 한편, 최근에는 탁아환경, 가정환경,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과 이러한 요소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숙령, 1997; Belsky, 1994; Honig, 1989; Zajdeman & Minnes, 199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탁아를 경험한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만 관심을 둔 것들이다.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겪는 하루하루, 즉 그들의 정서적인 경험이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Hatch, 1995).

문제행동 연구 또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므로,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상이한 보고를 하고 있으므로(한미현, 유안진, 1995)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것은 연구대상의 연령이나 특성,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문제행동이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이며, 문제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각 연령 특성에 맞는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개발·수정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Achenbach, 1991; Larzelere, Amberson &

Martin, 1989).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실시된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4 ~ 18세용)가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척도인지를 검증하였으며,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는 Achenbach의 도구에 기초하여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보육상황에서 나타나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의 영아반 아동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하루하루의 집단생활 중에 걸음마기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종류와 빈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행동 중 대부분의 영아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무엇이며, 소수의 영아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무엇인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사들이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특성과 그들을 보육하는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아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보육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보육기관에서 걸음마기 아동들이 표출하는 문제 행동들은 무엇인가?
 - 1-1) 빈도가 높은 문제행동들은 무엇인가?
 - 1-2) 빈도가 높은 문제행동 중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고루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소수의 아

동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무엇인가?

2. 걸음마기 아동이 표출하는 문제행동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걸음마기 아동이 표출하는 문제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교사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 4-1) 교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한 문제행동은 무엇인가?
 - 4-2)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지각한 문제행동은 무엇인가?
 - 4-3) 교사가 지각한 문제행동의 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간에는 상관성이 있는가?

2. 용어 정의

1) 걸음마기 아동: 걸음마기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학자에 따라서 시작하는 시기를 12개월, 15개월, 18개월 등으로, 그리고 끝나는 시기를 24개

월, 30개월, 36개월 등으로 달리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Lieberman(1995)의 정의에 따라서 12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었는 아동을 걸음마기 아동으로 보았다.

2)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정의 역시 학자에 따라 상이하여, 일시적이고 경미한 증상의 문제행동부터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증상의 문제행동까지를 포함한다(한미현, 유안진, 1995).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표출하는 부적응 행동 또는 교사나 다른 아동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을 문제행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살펴보았다.

3) 영아반: 발달심리학에서 영아관 보통 생후 1년간의 기간에 있는 아동을 칭한다(Santrock, 1995). 그러나 우리 나라 탁아기관의 영아반이란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학급을 통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영아반은 1세 ~ 3세 사이의 걸음마기 아동을 보육하는 학급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중산층 지역에 위치한 2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아 24명과,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56명이었다. 관찰 대상인 24명의 영아는 두 기관(이후부터는 A기관, B기관으로 칭함)에 속한 영아반 아동 전체였다. A기관과 B기관의 영아반에는 각각 12명의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의 연령 범위는 21개월 ~ 29개월로 전체 평균연령은 25개월이었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보육기관에 재원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

서 초기 적응기간이 지난 영아들이었다. 이 두 기관의 특징을 간략히 부가하면, A기관의 영아반 담당 교사는 3명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4였으며, B기관의 교사는 2명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6이었다. 또한 남아 대 여아의 성비를 보면 A기관은 2:1이었고 B기관은 3:1이었다. 물리적 환경면에서 A기관은 교실 내에 기저귀갈이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블록, 자동차, 그림책, 소꿉놀잇감 등의 교구가 풍부하였다. 이에 반해 B기관은 교실 안에 사물함과 교구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아동 개인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의 종류와 양은 부족한 편이

<표 1>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TBC)의 구성

범 주	문 항 번호	문항 예
공격적 행동	9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을 부순다
	22	다른 아이를 때린다
	31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
	44	친구를 문다
반항적 행동	4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낸다
	8	고함을 친다
	16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한다
	30	교사의 요청을 거부한다
정서 불안 행동	6	쉽게 격분한다
	13	짜증을 부리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
	26	부모와 잘 떨어지지 못한다
	41	야단을 치면 금방 노여워하거나 토라진다
미성숙 행동	7	칭얼거린다
	23	교사에게 매달린다
	35	입고 있는 옷에 오줌을 누다
	65	음식을 먹여 주어야 한다
위축 행동	15	수줍어하거나 소심하게 행동한다
	18	낯선 사람을 두려워한다
	49	놀지 않고 혼자만 있다
	59	기분이 우울하거나 위축되어 있다
신체 및 건강* 관련 행동	1	편식을 한다
	2	먹기를 싫어한다
	27	자주 아프다
	42	변비가 있다

* Larzelere, Amberson, Martin(1989)의 TBC에서는 기타범주로 칭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 및 건강 관련 행동으로 칭하였다.

였다.

설문 대상인 56명의 영아반 담당 교사들은 먼저 서울시에 소재하는 구립 어린이집 중 50기관을 행정구역 단위로 체계적 무선표집을 한 후, 각 기관에 현재 영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완성할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를 2부씩 발송한 결과 발송된 100부 가운데 56부가 회수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2. 연구도구

1) 걸음마기 아동 행동 관찰목록

집단 보육 상황에서 걸음마기 아동이 표출하는 문제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아동 행동 관찰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Larzelere, Amberson, Martin(1989)이 제작한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Toddler Behavior Checklist: TBC)를 번안·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공격적 행

동, 반항적 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 정서불안 행동 등 5개 범주에 속한 10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103개 문항에는 집단 보육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문항, 발생빈도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런 문항들을 제외한 결과, 원래의 103개 문항에서 58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문항들이 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들을 충분히 망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자는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국내 육아서적들이 언급하고 있는 영아의 행동들을 고찰하여 11개 문항을 첨가하였다.

연구자는 이렇게 하여 완성된 69문항의 걸음마기 아동 행동 목록을 현장 교사 4인과 전문가 1인에게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또한 보육기관의 영아반 1개 반을 직접 방문하여 4일간 아동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수정된 목록이 아동들이 표출하는 문제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수정된 걸음마기 아동 행동 목록의 문항 예를 Larzelere 등(1989)이 채택한 범주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2)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수정판 TBC) : 교사용

연구자는 교사가 지각하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와 각 문제행동의 다루기 어려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구성한 걸음마기 아동 행동 관찰 목록의 각 문항마다 2개의 4점 척도(0, 1, 2, 3)를 첨가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될 연구도구의 적합성과 자

료수집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본조사 대상기관 2곳 중 1곳을 먼저 방문하여 1998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하루 8시간씩 영아반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아반 담당교사에게 수정판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를 예비로 실시하였다.

2) 본조사

(1) 아동관찰

본조사의 아동관찰은 1998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선정된 2개 기관의 영아반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일씩 총 8일간 관찰하였다. 관찰은 학급의 자연 상황에서 표출되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일화식 기록을 한 후, 기록 내용을 연구자가 구성한 아동행동목록에 기초하여 분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 평가척도(수정판 TBC) 실시

서울시의 행정 구 단위로 체계적 무선표집에 의해 선정된 50개 구립 어린이집에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를 2부씩 100부 발송하여 1998년 8월 20일부터 10월 5일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수하였다. 그 결과, 5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60%였다.

4. 자료분석

걸음마기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표출하는 문제행동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된 문제행동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연구문제 1-1).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행동 중 대부분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소수의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된 문제행동마다 표출 아동

<표 2> 문제행동의 종류와 빈도 (N=24)

순위	문제행동 (TBC 문항 번호)	빈도(%)
1	장난감을 빼앗는다(1)	108(14.96)
2	친구를 때린다(13)	101(13.99)
3	아무활동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5)	80(11.08)
4	칭얼거린다(17)	33(4.57)
5	친구를 민다(39)	32(4.43)
6	친구를 못살게 군다(11)	26(3.60)
7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25)	25(3.46)
8	소리를 지른다(15)	23(3.19)
9	책이나 장난감을 던진다(2)	22(3.05)
10	장난감을 입에 넣는다(22)	21(2.91)
11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때를 쓰며 운다(21)	18(2.49)
12	친구를 꼬집는다(27)	17(2.35)
13	나쁜 행동을 따라한다(33)	16(2.22)
14	장소 이동시 안 가려고 한다(38)	16(2.22)
15	교사의 요청을 거부한다(7)	15(2.08)
16	교사에게 매달린다(12)	14(1.94)
17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다(16)	12(1.66)
18	교사의 시선을 지나치게 요구한다(18)	12(1.66)
19	친구를 문다(37)	12(1.66)
20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이라 한다(19)	10(1.39)
21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29)	10(1.39)
22	엄마와 헤어질 때 운다(36)	10(1.39)
23	엄마를 찾는다(20)	9(1.25)
24	야단을 치면 금방 노여워하거나 토라진다(4)	8(1.11)
25	음식을 잘 안 먹는다(8)	8(1.11)
26	잘 때 손가락을 빨다(23)	8(1.11)
27	교사가 지도하면 더 심하게 운다(35)	8(1.11)
28	소심해진다(6)	7(0.97)
29	침을 뱉는다(26)	7(0.97)
30	편식을 한다(14)	6(0.83)
31	학급에 균것질감이나 장난감을 가져와 혼자만 논다(28)	6(0.83)
32	잘 때 투정을 부린다(24)	5(0.69)
33	화장실 가는 것을 싫어한다(30)	5(0.69)
34	자고 일어날 때 운다(32)	5(0.69)
35	책상이나 의자 위에서 구른다(3)	4(0.55)
36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9)	4(0.55)
37	옷이나 기저귀를 안 갈려고 한다(34)	3(0.42)
38	자기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31)	2(0.28)
39	자다가 운다(10)	1(0.14)
계		722(100)

수를 알아보았다(연구문제 1-2). 아울러 문제행동 빈도가 기관 및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행동 범주별 빈도에 대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3). 마지막으로, 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문제행동빈도와 다루기 어

려운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연구문제 4-1, 4-2), 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문제행동 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연구문제 4-3).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걸음마기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표출하는 문제행동

1) 문제행동의 종류와 빈도

관찰대상 아동에게서 나타난 문제행동 빈도는 총 722회였다. 가장 많이 발생한 문제행동은 '장난감을 빼앗는다'로 발생빈도는 108회였고, 이는 전체 발생빈도의 14.96%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문제행동은 '친구를 때린다'로 101회가 나타났으며 13.99%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 '칭얼거린다', '친구를 만다'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었다. 문제행동의 종류와 빈도에 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발생빈도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개 범주 중 공격적 행동이 332회로 총 문제행동 빈도의 44.6%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반항적 행동이 126회로 17.45%를 차지하였으며, 미성숙 행동은 118회로 16.34%를 차지하였다. 또한 위축행동은 92회, 정서불안행동은 50회, 신체 및 건강에 관한 행동은 14회로 각각 12.74%, 6.93%, 1.94%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범주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문제행동 범주별 빈도 (N=24)

순 위	문제행동 범주	빈도(%)
1	공격적 행동	322(44.60)
2	반항적 행동	126(17.45)
3	미성숙 행동	118(16.34)
4	위축 행동	92(12.74)
5	정서적 불안 행동	50(6.93)
6	신체 및 건강관련 행동	14(1.94)
계		722(100.0)

이러한 결과로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걸음마기 아동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 가운데 장난감을 빼앗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밀거나 못살게 구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가장 많이 표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때를 쓰며 울거나, 장소 이동시 안 갈려고 하는 등의 반항적 행동을 높은 빈도로 나타내었다. 관찰된 총 문제행동빈도 722회는 두 학급의 아동들이 4일간 보여준 문제행동 빈도로서 각 학급에서 하루에 표출된 문제행동의 빈도는 평균 90회 정도이며, 이는 담당교사가 하루에 접하게 되는 문제행동의 빈도를 의미하였다.

2)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소수 아동에게 집중되는 문제행동

본 연구의 관찰자료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아동

<표 4> 문제행동별 표출 아동의 수 (N=24)

발생빈도 순위	문제행동 (발생빈도)	표출 아동수(%)	1인당 표출횟수
1	장난감을 빼앗는다(108)	21(87.5)	5.1
2	친구를 때린다(101)	21(87.5)	4.8
3	아무활동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80)	14(58.3)	3.8
4	칭얼거린다(33)	10(41.6)	3.3
5	친구를 민다(32)	15(62.5)	2.1
6	친구를 못살게 군다(26)	9(37.5)	2.8
7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25)	9(37.5)	2.7
8	소리를 지른다(23)	7(29.1)	3.3
9	책이나 장난감을 던진다(22)	13(54.1)	1.7
10	장난감을 입에 넣는다(21)	8(33.3)	2.6
11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떼를 쓰며 운다(18)	6(25.0)	3.0
12	친구를 꼬집는다(17)	6(25.0)	2.8
13	나쁜 행동을 따라한다(16)	8(33.3)	2.0
14	장소 이동시 안 가려고 한다(16)	5(20.8)	3.2
15	교사의 요청을 거부한다(15)	7(29.1)	2.1
16	교사에게 매달린다(14)	2(8.3)	7.0
17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다(12)	7(29.1)	1.7
18	교사의 시선을 지나치게 요구한다(12)	3(12.5)	4.0
19	친구를 문다(10)	3(12.5)	3.3
20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이라 한다(10)	1(4.1)	10.0
21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10)	3(12.5)	3.3
22	부모와 헤어질 때 운다(9)	7(29.1)	1.3
23	엄마를 찾는다(8)	3(12.5)	2.7
24	야단을 치면 금방 노여워하거나 토라진다(8)	4(16.6)	2.0
25	음식을 잘 안 먹는다(8)	2(8.3)	4.0
26	잘 때 손가락을 빨다(8)	2(8.3)	4.0
27	교사가 지도하면 더 심하게 운다(8)	4(16.6)	2.0
28	소심해진다(7)	3(12.5)	2.3
29	침을 뱉는다(7)	1(4.1)	7.0
30	편식을 한다(6)	1(4.1)	6.0
31	학급에 균것질감이나 장난감을 가져와 혼자서만 논다(6)	5(20.8)	1.2
32	잘 때 투정을 부린다(5)	3(12.5)	1.6
33	화장실 가는 것을 싫어한다(5)	1(4.1)	5.0
34	자고 일어날 때 운다(5)	4(16.6)	1.2
35	책상이나 의자 위에서 구른다(4)	2(8.3)	2.0
36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4)	2(8.3)	2.0
37	옷이나 기저귀를 안 갈려고 한다(3)	1(4.1)	3.0
38	자기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2)	1(4.1)	2.0
39	자다가 운다(1)	1(4.1)	1.0
계	722	24(100.0)	30.1

<표 5> 기관에 따른 문제행동 범주별 빈도의 차이 (N=24)

문제행동 범주	A기관(n=12) 빈도(%)	B기관(n=12) 빈도(%)	계(N=24) 빈도(%)
공격적 행동	152(38.5)	170(51.9)	322(44.6)
반항적 행동	91(23.0)	35(10.6)	126(17.5)
미성숙 행동	73(18.5)	45(13.6)	118(16.4)
위축 행동	39(9.9)	53(16.1)	92(12.7)
정서불안 행동	26(6.6)	24(7.8)	50(6.9)
신체 및 건강관련 행동	14(3.6)	0(0.0)	14(1.9)
계	395(100.0)	327(100.0)	722(100.0)
	$\chi^2 = 43.68,$	$df = 5,$	$p < .001$

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소수 아동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종류를 구분해 본 결과, 앞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문제행동은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많이 발생한 '장난감을 빼앗는다'와 '친구를 때린다'는 24명의 아동 중 21명에게서 나타나 87.5%의 아동에게서 표출되었고, '친구를 민다'는 62.5%인 15명에게서 나타났다. 그 외에 '아무활동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 '책이나 장난감을 던진다'가 반수 이상의 아동에게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이라 한다', '침을 뱉는다' 등은 24명의 아동 중 1명(4.1%)에게서만 나타났을 뿐이며, '교사에게 매달린다'와 '음식을 잘 안 먹는다' 등은 2명에게서만 표출되었다. 또한 '친구를 문다'와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는 3명에게서 나타나 전체 아동의 12.5%만 표출한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들의 1인당 표출빈도를 보면 한 아동에게서만 나타난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이라 한다'는 1인당 표출빈도가 10회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에게 매달린다', '침을 뱉는다', '편식을 한다' 등도 1인당 표출빈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문제행동별 표출 아동의 수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2. 기관에 따른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

본 연구에서는 2개 보육기관 영아반 아동의 문제행동 범주별 빈도가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참조).

문제행동 범주별 빈도는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기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43.68, p < .001$). 즉 A, B기관 모두 공격적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A기관은 전체 문제행동의 38.5%를, B기관은 51.9%를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반항적 행동에 있어서는 A기관이 전체 문제행동의 23%, 그리고 B기관이 10%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기관에서 많이 표출되는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A기관에서는 B기관보다 공격적 행동의 표출 비율이 낮았으나, 반항적 행동과 미성숙행동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B기관은 공격적 행동과 위축행동이 더 빈번한 경향을 보였다.

<표 6> 성에 따른 문제행동 범주별 빈도의 차이 (N=24)

문제행동 범주	남(n=17) 빈도(%)	여(n=7) 빈도(%)	총계(N=24) 빈도(%)
공격적 행동	266(46.1)	56(38.6)	322(44.60)
반항적 행동	110(19.1)	16(11.0)	126(17.45)
미성숙 행동	82(14.2)	36(24.8)	118(16.34)
위축 행동	76(13.2)	16(11.0)	92(12.74)
정서적 불안 행동	29(5.1)	21(14.6)	50(6.93)
신체 및 건강관련 행동	14(2.3)	0(0.0)	14(1.94)
계	577(100.0)	145(100.0)	722(100.0)

$\chi^2 = 32.93,$ $df=5,$ $p<.001$

3. 성별에 따른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범주별 발생비율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32.93, p<.001$). 남아는 전체 문제행동 중 공격적 행동이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항적 행동, 미성숙 행동, 위축행동, 정서불안행동, 신체 및 건강관련 행동의 순서로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반면에 여아는 공격적 행동이 38.6%였고 그 다음으로, 미성숙 행동과 정서불안행동을 많이 보였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적 행동과 반항적 행동을 많이 보인데 반해, 여아는 미성숙 행동과 정서불안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표 6 참조).

4. 교사가 지각한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1) 자주 발생하는 문제행동

영아반 담당교사 56 명이 완성한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를 분석한 결과, 4점 척도(전혀:0, 가끔:1 자주:2 아주 많이:3)상에서 평균1.5 이상의 점수를 얻어서 교사들이 비교적 자주 일어

나는 문제행동으로 지각한 행동은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문항30, 평균 2.3),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문항11, 평균 2.2), '다른 아이와 싸운다'(문항14, 평균, 2.2), '음식을 먹는 동안 흘린다'(문항37, 평균, 2.1),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문항16, 평균 1.9), '칭얼거린다'(문항7, 평균 1.8)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된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항 번호)	평균 (1.5이상)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30)		2.3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11)		2.2
다른 아이와 싸운다(14)		2.2
음식을 먹는 동안 흘린다(37)		2.1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16)		1.9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낸다(4)		1.8
칭얼거린다(7)		1.8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린다(21)		1.8
해달라고 떼를 쓴다(32)		1.8
교사의 시선을 많이 요구한다(12)		1.7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떼를 쓴다(59)		1.6
고함을 지른다(8)		1.5
교사에게 매달린다(22)		1.5
물건을 부딪쳐 소리를 낸다(47)		1.5

이와 같은 결과를 앞의 아동관찰을 통한 문제 행동 발생빈도와 비교해 보면,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거나, 다른 아이와 싸우는 행동,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행동,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은 관찰 및 교사용 평가 척도 모두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관찰에서 세 번째로 많이 관찰된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는 교사 평정에서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불일치를 보였다.

2) 다루기 어려운 문제행동

보육기관에서 걸음마기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 중 교사가 다루기 어려워하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의 4점 척도(전혀:0, 약간:1 많이:2 아주 많이:3)에서 평균 1.5 이상의 점수를 얻은 문항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사가 비교적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문항 66, 평균 1.9),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문항 16, 평균 1.8),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린다'(문항 21, 평균 1.8),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문항 11, 평균 1.5)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지각한 발생빈도 평균과 함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지각한 문제행동의 종류와 문제행동 발생빈도를 <표 8>에 기초하여 비교해 보면,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는 평균빈도 1.2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정도는 평균 1.9로 많이 어려운 경우여서 주목할만하다. 그 외에 교사가 다루기 어렵다고 지각한 문제행동들은 발생빈도도 1.5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행동들임을 알 수 있었다.

5. 교사가 지각한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간의 관계

교사가 지각한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 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생 빈도 또는 어려운 정도의 평균이 1.5 이상으로 높은 문제행동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표 9>에 의하면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아이와 싸운다', '칭얼거린다', '해달라고 떼를 쓴다' 등은 어려운 정도와 빈도의 평균이 높은 편이고, 둘간의 상관 정도도 높아서 교사들이 걸음마기 아동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일뿐 아니라 다루기도 어렵게 느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은

<표 8> 교사가 지각한 다루기 어려운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항 번호)	어려움 평균(1.5 이상)	빈도 평균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66번)	1.9	1.2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16번)	1.8	1.9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린다(21번)	1.8	1.8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거부한다(11번)	1.5	2.2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30번)	1.5	2.3

<표 9> 교사가 지각한 문제행동 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간의 관계 (N=56)

문제행동 (문항번호)	문제행동 빈도평균(SD)	다루기 어려운 정도평균(SD)	상관계수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30)	2.3(0.8)	1.4(0.9)	.44 ***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11)	2.2(0.8)	1.5(0.8)	.47 ***
다른 아이와 싸운다(14)	2.2(0.6)	1.3(0.7)	.36 ***
음식을 먹는 동안 흘린다(37)	2.1(0.6)	1.0(0.7)	.36 ***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16)	1.9(0.6)	1.8(0.8)	.26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낸다(4)	1.8(0.6)	1.3(0.3)	.10
칭얼거린다(7)	1.8(0.6)	1.3(0.8)	.49 ***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린다(21)	1.8(0.7)	1.8(0.8)	.26 *
해달라고 때를 쓴다(32)	1.8(0.8)	1.4(0.8)	.44 ***
교사의 시선을 많이 요구한다(12)	1.7(0.7)	0.9(1.0)	.17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때를 쓴다(59)	1.6(0.6)	1.1(1.0)	.13
고함을 지른다(8)	1.5(0.8)	0.8(0.6)	.19
교사에게 매달린다(22)	1.5(0.7)	0.9(0.8)	.31 *
물건을 부딪쳐 소리를 낸다(47)	1.5(0.6)	1.0(0.6)	.50 ***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66)	1.2(0.7)	1.9(1.0)	.46 ***

* p<.05, ** p<.01, *** p<.001

계속 한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낸다'는 어려운 정도의 평균에 비하여 빈도의 평균이 높고 이 둘간의 상관 정도가 낮아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이긴 하나 교사에 따라 어려움 정도가 다르게 경험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

어진다'와 같은 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에게서 아주 높은 빈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의 평균이 높고 상관 계수 또한 높은 점으로 보아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의 교사가 다루기 어려워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시내 두 개 보육기관의 영아반 아동 24명을 관찰하였고, 보육기관의 영아반 담당 교사에게 걸음마기 아동 행동 평가척도를 의뢰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표출되는 걸음

마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장난감을 빼앗는다'였고, '친구를 때린다',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 '칭얼거린다', '친구를 민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등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빈도를 범주별로 구분해 보면 공격적 행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항적 행동, 미성숙 행동, 정서 불안 행동, 위축행동, 신체 및 건

강관련 행동 순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교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겪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90회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육기관에 재원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자료여서 학기초 적응기간동안의 문제행동 빈도보다 많이 감소된 수치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교사가 하루에 겪는 문제행동의 양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가운데는 보육기관에서 걸음마기 아동을 직접 관찰하여 문제행동의 양상이나 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어렵다. 그러나 Larzelere, Amberson, Martin (1989)과 Achenbach(1987) 등이 2-3 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자녀 행동 평정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무조건 때를 쓰며 화를 내거나, 음식 먹기를 거부하거나, 하루종일 오줌을 싸거나, 이유 없이 울고 칭얼거리는 등의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문제행동과는 다른 종류인 것을 볼 때, 가정과 기관에서의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비교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부분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소수의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앞서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행동으로 밝혀졌던 장난감 빼앗기, 친구 때리기, 친구 밀기 등의 행동이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이라 허거나, 침을 빨거나, 무는 행동, 음식을 잘 안 먹는 행동 등은 소수의 아동에게서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연구대상 아동에게 나타난 문제행동은 걸음마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볼 수 있겠으며, 소수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기질적인 원인이나 가정환경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특히 소수의 아동이 집중적으로 표출하는 문제행동들은 교사의 개별지도와 부모와의 협력 지도가 필요한 행동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 아동이 소수여서 단정적으로 결론 짓기는 어려우나, A, B 기관 모두 공격적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A기관에서는 반항적 행동과 미성숙 행동이, B기관에서는 위축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두 기관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교실의 물리적 환경 면에서 상이함이 있었고, 관찰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종류와 빈도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A 기관에서는 수줍어하는 아동이나 방관하는 아동에게 교사가 조심스럽게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아동을 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하였으며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도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B 기관에서는 아동과의 개별적인 언어적 상호작용보다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건강관리를 우위에 두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걸음마기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기관의 인적·물적 환경에 의해서도 다르게 표출된다고 해석 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하여 공격적 행동과 반항적 행동을 많이 보인데 반하여 여아는 미성숙 행동과 정서불안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문제 행동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과활동성, 주의 산만 등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숙령, 1997; Rubin & Clark, 1983),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가 지각한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

행동 발생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교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한 문제 행동들은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아이와 싸운다', '음식을 먹는 동안 흘린다',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 등이었다. 또한 교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지각한 문제행동은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진다'였으며,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린다',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 등도 교사가 어려워하는 행동들이었다.

여섯째, 교사가 지각한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 행동 발생빈도와 다루기 어려운 정도간의 상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다',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아이와 싸운다' 등은 빈도와 어려움 정도가 모두 높고 이 둘간의 상관도 높아서 교사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일어나는 문제행동으로 지각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 한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낸다', '교사의 시선을 많이 요구한다',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때를 쓴다' 등의 행동들은 빈도와 어려움 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아서 발생빈도에 관계없이 교사 개인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관찰 결과와 교사평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걸음마기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생활할 때 교사에게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행동은 장난감을 빼앗는 행동, 친구를 밀거나 때리는 행동, 소리를 지르는 행동,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때를 쓰며 우는 행동 등의 공격적 행동과 반항적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걸음마기 아동에게 대물다툼, 때리기 등의 행동이 흔히 나타나는 행동임을 예상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행동

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 및 행동지도 방안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소수의 아동에게서 표출되기는 하지만 높은 빈도로 발생되어 학급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인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이라 하거나, 침을 뱉거나, 친구를 무는 행동 등에 대하여는 개별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특별히 가정과의 연계에 기초하여 개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이 그 시기 동안의 발달적 특성 뿐 아니라, 기질적 특성, 기관의 인적·물적 환경, 가족변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보육을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영아반 담당 교사가 걸음마기의 발달적 특징과 아동의 개별적인 기질을 충분히 숙고하여 환경을 구성하고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 재교육과 실제적인 자료 제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기관에서 6개월간 재원하여 적응기간이 지난 걸음마기 아동들을 관찰하여 얻은 것들이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3~4월의 적응기간에 아동을 관찰하여 초기 적응기간에 나타나는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 종류, 발생빈도, 특성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걸음마기 아동을 지도하는데 더욱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집단 양육 상황에서 하나의 문제행동이 표출되면 교실 내에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사례연구나 교사 보고식 연구로 고찰해 보면 이 연령의 아동들이 또래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아보육의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어려움에 압도되기보다는 적절한 지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레지오 에밀리아의 영아 프로그램에서도 어린 아동들이 사회적 관계를 원하고, 즐기며, 집단상황에도 잘 적응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와 같

이(김희진, 오문자 역, 1996)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유능하게 적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영아보육이 교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 상황에서 어린

유아들의 사회·정서적 능력을 조명하는 연구와 영아보육이 교사에게 주는 성취감 등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숙령(1997). 영유아기의 타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박경자(1991). 영유아기 타인 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이재연, 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양서원.
- 이차숙(1991). 타아와 영유아 발달. 탁아연구 1, 서울:양서원.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천희영(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 ~ 211.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 ~ 17.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198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the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of 2-and3-year-ol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629-650.
- Belsky, J.(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아동학회 추계워크샵 자료집. 1-5.
- Caruso, Grace-Ann L.; Corsini, David A.(1994). The Prevalence of Behavior Problems in Toddlers in Child Car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5(1), 27-40.
- Edwards, C., Gandini, L.(1998).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김희진, 오문자 (역). 서울: 정민사.
- Hatch, J. A.(1995). *Qualitative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ettings*. Westport, CT: Praeger.
- Honig, A.S., Wittmer, D.S.(1989). *Recent Infant/Toddler Research: A Helpful Guide for Caregivers*. EDRS. ED 314 169.
- Koralek, G.D., Colker, J.L., Dodge, T.D.(1993). *The What, Why, How of High-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 Guide For On-Site Supervision*. Washington, DC: NAEYC
- Larzelere, E.M., Amberson, A.J., Martin, G.T.(1989). The Toddler Behavior Checklist: A Parent-Completed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38, 418-425.
- Lieberman, F. A.(1995). *The Emotional Life of the Toddler*. New York: Free Press.
- Rubin, R.R., Fisher, J.J., Doering, G.S.(1980). *Your Toddler*. New York : MacMillan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Mazel.
- Santrock, J. W.(1995). *Children*. Wisconsin: Brown & Benchmark.
- Zajdeman, H.S., Minnes. P.M.(1991). Predictors of children's adjustment to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74, 11-28.